

# 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계획

2006. 10

전북발전연구원

# 목 차

## I. 서론

-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1.2. 연구목적

## II. 전라북도 산업 및 식품산업의 현황과 전망

- 2.1. 전라북도의 산업현황
- 2.2. 식품산업의 현황
- 2.3. 식품산업의 문제점
- 2.4. 식품산업의 향후 전망

## III. 전라북도 식품산업클러스터 구축 기본방향

- 3.1. 식품산업 발전과제
- 3.2. 전라북도 식품산업의 여건 및 비전
- 3.3. 전라북도 식품산업 클러스터 구축방향

## IV. 전라북도 식품산업클러스터 구축 추진전략

- 4.1. 전라북도 식품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중점과제
- 4.2.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 4.3.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
- 4.4. 기업 및 해외자본 유치
- 4.5. 단계별 사업추진 전략
- 4.6. 식품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핵심 추진과제

# I. 서론

##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급속한 산업화, 국제화 및 식품 소비패턴 변화에 따라 가공식품의 생산, 소비 및 외식이 급속히 증가하고 다양화가 진행되어 식품산업의 성장 예상
- 일본 미쯔비씨 종합연구소 산업동향연구소의 보고에도 21세기 새로운 성장산업 13가지 중 하나로 '식품·음료산업'을 선정
- 식품산업은 농산물 소비의 연장선상에 있어 농업성장을 견인하는 산업이며 식량안보와 직결되고 있어 농업정책의 한 부분으로 관리필요
- 생활수준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로 기능성 식품 등의 개발이 촉진되어 식품산업의 부가가치가 향상될 전망. 인구 구조의 고령화로 노인식과 같은 실버식품이 확대되고, 전문화 및 특성화 추세에 따라 특수영양식(예:당뇨병 환자식)분야 등의 확대 예상
- 식품산업의 구조도 R&D를 통해 다양한 고품질의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대기업이 주도하게 될 것이며, 지역 특산농산물에 기반한 중소기업체들만이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
- 전라북도는 농도이면서 식품산업의 발달한 지역으로 향후 식품산업의 발전기반을 확립하여 세계적인 식품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우리 농산물의 세계화 마케팅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기존 전통농업생산 위주의 산업에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가공·유통의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으로의 발전을 유도하며, 외자 및 기업 유치를 통해 전라북도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기폭제로 삼아야 할 것임

## 1.2. 연구목적

- 식품산업클러스터 구축에 용이한 혁신환경 조성을 위해 국책사업으로 R&D-제조-유통 및 종합관리 등이 광역적으로 집적화된 지식집약형 식품산업 집적지를 전북에 조성하는 미래지향적 발전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전략과제와 추진전략을 도출함

## II. 전라북도 산업 및 식품산업의 현황과 전망

### 2.1. 전라북도의 산업현황

#### 가. 산업구조

##### □ 지역내 총생산

- 전북의 지역내총생산액(GRDP)은 2004년 말 24조 960억 원으로 전국합계의 3.1%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북의 인구비중 3.9%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전북지역이 상대적으로 발달이 지체되어 있음
- 지역내총생산의 변화를 보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전국대비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며, 1인당 지역내총생산도 전국평균의 70~80% 수준에 있어 다른 시·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제기반이 매우 취약함을 보이고 있음
- 전북 경제의 발달 부진의 원인은 전북의 산업구조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변화에 조응하여 재편되지 못한데 따른 것임

<표 1> 전북의 지역내 총생산

	지역내총생산(GRDP) (십억 원)			1인당 GRDP (천원)		
	전북(a)	전국(A)	전국대비(a/A)	전북(b)	전국(B)	전국대비(b/B)
1985	3,396	87,976	3.9%	1,529	2,156	70.9%
1990	6,416	194,546	3.3%	3,135	4,538	69.1%
1995	14,112	410,131	3.4%	7,343	9,095	80.7%
2000	18,978	577,971	3.3%	9,848	12,295	80.1%
2004	24,096	786,362	3.1%	13,085	16,355	80.0%

자료 : 통계청(KOSIS), 2006

##### □ 전북의 산업별 산업구조

- 전북의 산업별 비중은 농림어업 12.9%, 광공업 27.2%,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59.9%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농림어업부문의 비중이 매우 높고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가 큰 제조업의 비중은 낮은 산업구조를 보임

<표 2> 전북의 주요산업 비중

	사업체수		종사자수	
	전북	전국비중	전북	전국비중
농업 및 임업	168	8.7%	2213	8.9%
어업	13	3.2%	40	0.6%
광업	86	4.7%	802	4.2%
제조업	9,415	2.9%	83,179	2.4%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106	7.1%	2,391	3.7%
건설업	3,126	3.7%	22,840	3.1%
도매 및 소매업	35,159	4.0%	82,644	3.3%
숙박 및 음식점업	23,287	3.6%	58,397	3.4%
운수업	11,644	3.5%	26,643	3.1%
통신업	470	5.3%	5,602	4.3%
금융 및 보험업	1,392	4.1%	20,186	3.5%
부동산 및 임대업	2,706	2.4%	9,114	2.2%
사업서비스업	2,246	2.6%	13,588	1.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80	7.1%	26,977	5.2%
교육 서비스업	5,687	4.7%	48,662	4.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3,018	4.1%	24,991	4.2%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4,602	3.6%	12,150	3.3%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16,160	4.7%	32,422	4.1%
전라북도(합계)	120,165	3.8%	472,841	3.2%

자료 : 통계청(KOSIS), 2004년 말 기준

- 전북의 산업구조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농업 및 임업은 전국대비 비중이 사업체수가 8.7%, 종사자수가 8.9%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농업이 여전히 전북의 특화산업임을 보여줌
- 전북의 산업별 산업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한 입지상 계수를 보면, 상기 전국 대비 비중과 비슷한 결과를 보이면서 농림업, 통신업, 공공행정 및 교육서비스업 등은 비교우위에 있으며, 어업, 제조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분야 등은 비교열위에 있음

- 1994년 이후, 입지상 계수의 연도별 변화는 농림업의 상승과 어업의 하락이 뚜렷하며, 제조업에서는 최근 10년 동안 소폭 상승하였음

<표 3> 전북의 산업별 입지상 계수(종사자수 기준)

	입지상 계수		
	1994년	1999년	2004년
농업 및 임업	2.25	2.06	2.80
어업	1.37	0.34	0.19
광업	1.10	1.11	1.33
제조업	0.72	0.74	0.76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1.23	1.02	1.15
건설업	1.07	0.88	0.98
도매 및 소매업	0.99	1.03	1.04
숙박 및 음식점업	1.07	1.10	1.08
운수업	1.05	0.97	0.97
통신업	1.46	1.41	1.33
금융 및 보험업	1.19	1.19	1.09
부동산 및 임대업	0.66	0.80	0.69
사업서비스업	0.52	0.50	0.4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77	1.49	1.62
교육 서비스업	1.54	1.36	1.36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15	1.25	1.3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0.99	1.04	1.02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1.17	1.27	1.29

자료 : 전라북도, 전북통계연보, 2005

#### 나. 제조업 현황

##### □ 제조업체 수 및 생산액

- 2004년 말 전북의 제조업 사업체 수는 2,368개로 전국대비 2.1%, 생산액은 21조 2,490억원으로 전국대비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1999년과 비교하였을 때 종사자, 출하액 및 부가가치를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하락함

<표 4> 제조업의 부문별 현황

	전북				전국	
	1999년		2004년		1999년	2004년
사업체수(개)	2,063	2.3%	2,368	2.1%	91,156	113,310
종사자수(명)	71,094	2.8%	72,422	2.6%	2,507,726	2,798,192
생산액(10억원)	14,642	3.1%	21,249	2.7%	479,733	794,853
출하액(10억원)	14,638	3.1%	21,000	2.7%	477,987	788,633
부가가치(10억원)	6,174	3.1%	7,258	2.4%	200,935	301,863

주 : 5인이상 제조업체 대상, 백분율은 전국 총계 대비 비중임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 2006

- 제조업 분야를 업종별로 좀 더 세분화하여 살펴보기 위해 사업체수, 종사자수, 그리고 부가가치를 중심으로 전국 수준과 비교한 결과, 음식료품, 목재/나무제품, 펄프/종이 등, 화합물/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과 자동차/트레일러 등의 업종에서 우위를 보임<표 5>
- 담배제조업, 봉제의복/모피제품과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은 사업체수는 많으나 종사자수나 부가가치가 적은 것으로 보여 해당 업종의 대부분 사업체에서 규모의 영세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임

□ 제조업종별 특화분야

- 다음은 제조업 분야에서 특화된 분야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부가가치와 종사자수를 이용하여 전북의 제조업 23개 업종을 대상으로 입지상 계수와 상대적 노동생산성지수 및 상대적 단위노동비용지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음
- 2003년 말 자료를 이용하여 전북의 산업별 입지상계수를 보면, 계수가 1이상인 업종은 부가가치 기준으로 7개, 종사자수 기준으로 9개 업종으로 나타나며, 이중 계수가 2이상인 업종은 부가가치와 종사자수에서 모두 목재·나무제품, 자동차, 펄프·종이, 음식료품, 비금속광물제품 등 5개 업종으로, 전북의 특화산업을 형성함. 그 밖에 화학제품, 섬유제품, 봉제의복·모피제품,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등의 업종이 1이상으로, 어느 정도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임<표 6>

<표 5> 제조업종별 현황

	사업체수		월평균 종사자수		부가가치(백만원)	
	전북	전국 비중	전북	전국 비중	전북	전국 비중
제조업 전체	2,368	2.1%	72,422	2.6%	7,258,100	2.4%
음·식료품	481	6.0%	12,928	6.9%	1,695,031	8.8%
담배	1	8.3%	-	-	-	-
섬유제품 ; 봉제의복 제외	118	1.3%	4,117	2.5%	304,196	3.4%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195	2.3%	3,903	3.2%	70,846	1.2%
가죽, 가방 및 신발	3	0.2%	78	0.2%	2,775	0.2%
목재 및 나무제품	133	6.6%	1,733	6.7%	135,498	8.8%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77	2.6%	3,325	5.5%	361,109	6.8%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65	1.1%	1,116	1.1%	37,859	0.5%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2	1.8%	-	-	-	-
화합물 및 화학제품	133	3.4%	6,178	4.5%	1,259,767	4.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132	1.5%	2,848	1.5%	185,388	1.4%
비금속광물제품	289	7.0%	5,574	6.4%	582,468	5.3%
제 1차 금속산업	36	1.3%	2,491	2.2%	346,215	1.4%
조립금속제품	173	1.2%	2,364	1.0%	141,947	1.0%
기타 기계 및 장비	136	0.9%	3,103	1.0%	206,957	0.8%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5	0.7%	51	0.2%	3,935	0.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60	1.0%	1,525	1.1%	83,736	0.8%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29	0.6%	3,843	1.1%	221,771	0.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18	0.6%	281	0.5%	9,476	0.3%
자동차 및 트레일러	147	4.0%	14,616	5.9%	1,464,936	4.9%
기타 운송장비	7	0.6%	110	0.1%	6,778	0.1%
가구 및 기타 제품	113	1.9%	1,865	2.3%	102,548	2.4%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15	3.4%	201	3.5%	10,801	2.1%

주 : 5인이상 제조업체 대상

자료 : 통계청(KOSIS), 2004년 말 기준

- 전북의 제조업종별 특화분야를 각 지표별로 살펴보면, 전북의 특화산업이 약간의 차이를 보임. 입지상의 경우 비교우위 업종은 목재·나무제품, 자동차, 펄프·종이, 음식료품, 비금속광물제품, 화학제품, 섬유제품, 봉제의복·모피제품,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등으로 나타나며, 상



대적노동생산성지수와 상대적단위노동비용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경쟁력이 있는 제조업종은 목재·나무제품, 자동차, 펄프·종이, 섬유제품, 화학제품 등으로 나타남

<표 6> 전북 제조업 업종별 입지상계수

순위	부가가치 기준	입지상계수	종사자수 기준	입지상계수
1	목재 및 나무제품	3.4477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2.7143
2	자동차 및 트레일러	2.9507	음·식료품 제조업	2.5644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2.7539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2.4741
4	음·식료품	2.189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821
5	비금속광물제품	2.043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0020
6	화합물 및 화학제품	1.8022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1.7008
7	섬유제품 제조업	1.2807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3301
8	가구 및 기타 제품	0.8303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1.2991
9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0.8091	섬유제품 제조업	1.0804
10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0.4653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0.9158
11	제 1차 금속산업	0.4070	제 1차 금속산업	0.8984
12	조립금속제품	0.3939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0.5317
13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0.3868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0.4965
14	기타 기계 및 장비	0.2935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0.4670
15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0.267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0.4093
16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0.1575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0.4066
1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0.1563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0.3365
18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0.134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0.3231
19	가죽, 가방 및 신발	0.0813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0.1076
20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0.0228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0.0885
21	기타 운송장비	0.0192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0.0483
22	담배 제조업	0.0000	담배 제조업	0.0000
23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0.0000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0.0000

자료 : 통계청(KOSIS),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2003.

- 이를 종합하면 3가지 모든 지표에서 상대적으로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은 목재 및 나무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화합물 화

학제품, 섬유제품(봉제의복 제외)제조업 등 5개 업종이 경쟁력을 가지면서  
구성비가 높은 특화산업으로 분류되며, 이들 산업 가운데 특히 자동차 및  
트레일러 산업은 현 추세로 보아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가능성이 클 것으  
로 예상됨<표 7>

<표 7> 전북의 제조업 특화업종

	입지상(LQ)		상대적 노동생산성지수 (CLP)	상대적 단위노동 비용지수(CULC)
	부가가치기준	종사자수기준		
1	목재 및 나무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목재 및 나무제품
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음·식료품	목재 및 나무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목재 및 나무제품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섬유제품(봉제의복제외)
4	음·식료품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섬유제품(봉제의복제외)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5	비금속광물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화학물 및 화학제품	기타 운송장비
6	화학물 및 화학제품	화학물 및 화학제품	가죽, 가방 및 신발	화학물 및 화학제품
7	섬유제품(봉제의복제외)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가구 및 기타 제품	가구 및 기타 제품
8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9		섬유제품(봉제의복제외)		조립금속제품
10				가죽, 가방 및 신발

#### 다. 산업단지

- 전북지역에 조성되어 있는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3개소, 지방산업  
단지 10개소, 농공단지 33개소, 그리고 2개의 자유무역지역이 조성되  
어 있음
- 전북지역의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는 전주-익산-군산을 주축으로 하고  
익산-김제-정읍을 보조축으로 하는 전북의 중심산업지역인 T자형 산  
업벨트에 대부분 위치함<sup>1)</sup>

1) ○ 국가산단 : 군산 688만평, 익산 43만평

○ 지방산단 : 전주 165만평, 완주 101만평, 익산 100만평, 군산 171만평, 정읍 68만평, 김제 8만평

○ 농공단지 : 전주를 제외한 전 시·군에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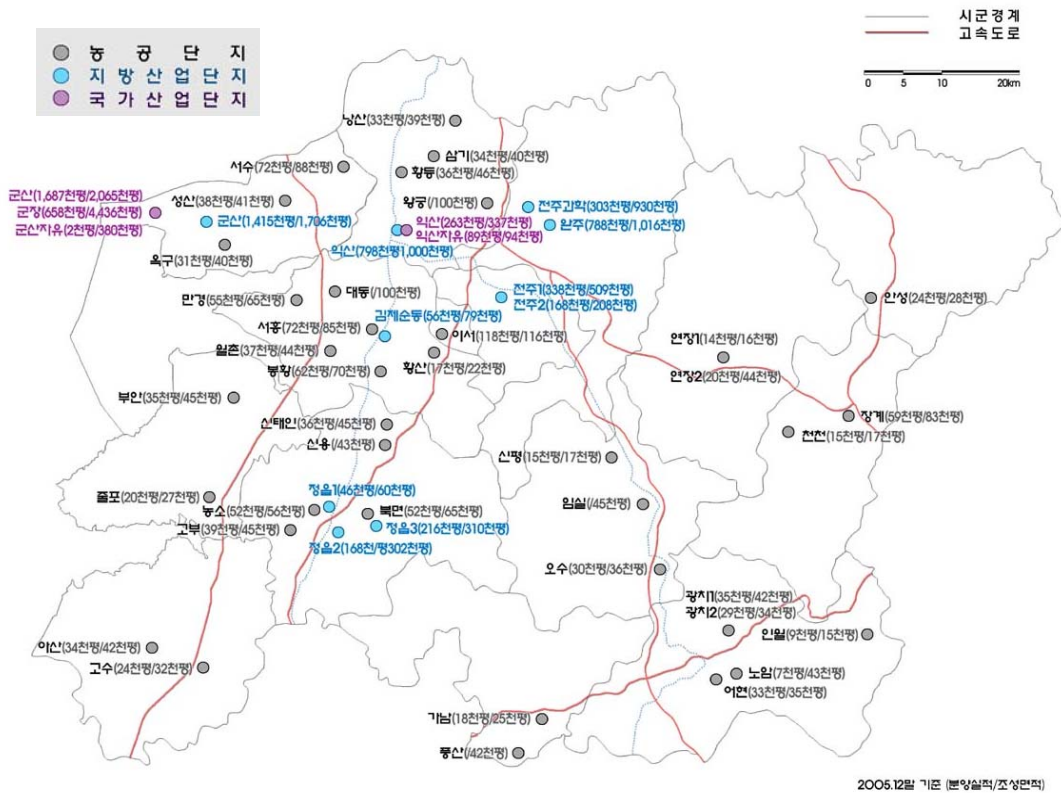
※ 2006.09 현재 33만평 조성중(익산왕궁, 정읍신용, 김제대동, 임실임실, 순창풍산)

<표 8> 산업단지 조성현황

단위 : 억원, 만평, %

구분	지구	사업비	조성면적	분양대상	분양면적	분양율
계	46	18,312	1,493	1,108	931	83.8
국가산단	3	10,680	731	511	374	73.1
지방산단	10	6,410	613	455	418	92.0
농공단지	33	1,222	149	142	139	97.5

자료 : 전라북도 내부자료, 2006



<그림 1>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 위치도

-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업종은 운송장비, 조립금속, 섬유, 기계, 석유화학, 비금속 및 음식료품 등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조성 및 분양면적으로 국가산단의 규모가 가장 크며, 2006년까지 조성되는 군장국가산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분양되었고, 지방산단도 전주과학산단과 정읍 제2산단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분양이 완료된 상태이며, 전주시첨단산단이 현재 조성 중에 있음

- 따라서 종원업 수와 생산액 및 입주업체의 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지방산단이 국가산단보다 더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음

## 2.2. 식품산업의 현황

### 가. 식품산업의 정의

#### □ 식품산업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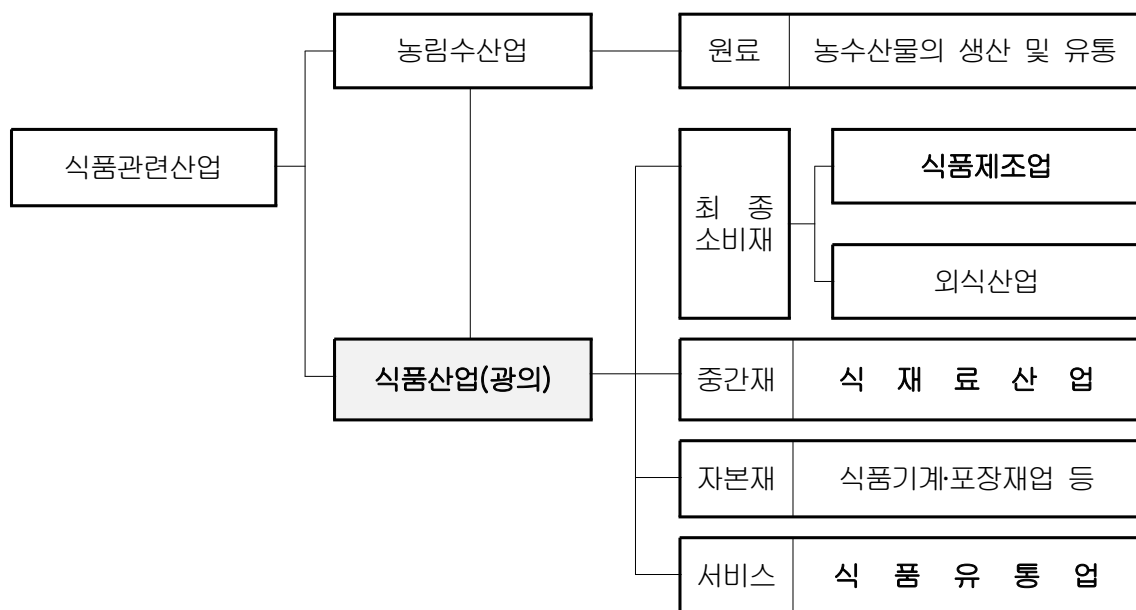
- 원료농산물을 이용한 식품의 가공·제조·보관·운반·유통·조리 및 소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제반 활동에 관한 산업

#### □ 광의의 식품산업

- ① 식품제조업, ② 외식산업, ③ 식재료산업, ④ 식품기계업, ⑤ 식품유통업(수집·중개·운반·보관·판매)을 의미

#### □ 협의의 식품산업

- 식품제조업(식품·식품첨가물), 냉동보관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음·식료품제조업을 의미



<그림 2> 정책대상으로서의 식품산업의 범위

## 나. 식품산업의 현황

### □ 식품산업의 규모

- 국내 식품산업 총생산액은 3조 45억원으로 전체 제조업GDP의 15.09%이며, 국내총생산(GDP)의 3.86% 수준임
- 전체제조업GDP와 국내총생산에 대한 비중은 1997년, 2000년에 비교할 때 감소하고 있으나, 식품산업 생산액은 전반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음

<표 9> 식품산업의 규모

단위 : 십억원, %

연 도	제조업 GDP (A)	국내총생산 (GDP)(B)	식품산업 총생산액(C)	C/A	C/B
1997	115,222	491,135	19,456	16.89	3.96
2000	150,702	578,665	25,549	16.95	4.42
2004	199,126	778,445	30,045	15.09	3.86

자료 : 식품의약안전청, \*\*, 2004

- 국내 식품시장규모는 식품제조업의 경우 매출액 기준으로 280억불로 전세계의 1% 점유('02 기준, 식품공업협회)
  - 세계 식품시장은 28,500억불이며 미국 30%, 유럽 29%, 중국 10% 차지

### □ 지속적인 해외 마케팅으로 농식품의 수출 증가

- 농림축산가공식품의 수출육성정책으로 '04년도 20억불 수출달성
  - 농림축산가공품 수출액 : ('02)16.4억불 → ('03)18.6 → ('04)20.1
  - 가공식품 수출액 : ('02)11.1억불 → ('03)12.7 → ('04)14.4

### □ 가공식품의 수요증가에 따라 농산물 가공비율은 증가하고 있으나 수입산이 국산 가공비율을 크게 상회

- 국산농산물 가공비율 : 85) 9.7% → 90) 11.4 → 95) 10.2 → 00) 13.5
- 수입농산물 가공비율 : 85) 21.9% → 90) 26.4 → 95) 27.0 → 00) 29.8

<표 10> 농산물 가공비율

구 분		1985	1990	1995	2000
전체농산물 가공	금액(10억원)	1,600	2,765	4,034	5,925
	비율(%)	10.82	12.54	11.93	<b>15.04</b>
국산농산물 가공	금액(10억원)	1,307	2,311	3,103	4,812
	비율(%)	9.71	11.36	10.21	<b>13.50</b>
수입농산물 가공	금액(10억원)	293	454	931	1,113
	비율(%)	21.93	26.42	27.01	<b>29.79</b>

자료 :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각 연도별

- 가공식품에 사용된 농산물 가운데 국산은 1985년에 86.3%의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2000년에 78.3%로 하락하고 수입산은 1985년에 13.7%에서 2000년에 21.7%로 증가
  - 특히, 수입반가공품 이용비율이 1985년에 8.6%에서 2000년에 24.4%로 대폭 증가하여 반가공품의 수입의존율이 큰 폭으로 증가

<표 11> 식품가공산업의 원료이용 구조

단위 : %

구 분		1985	1990	1995	2000
국 산	전 체	86.31	84.27	78.18	<b>78.3</b>
	농 산 물	81.69	83.57	76.92	81.1
	반가공품	91.38	84.96	79.26	75.6
수입산	전 체	13.69	15.73	21.82	<b>21.7</b>
	농 산 물	18.31	16.43	23.08	18.9
	반가공품	8.62	15.04	20.74	24.4

자료 :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각연도별

-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의 영향으로 도시가계의 신선식품 소비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가공식품 소비는 증가
  - 식료품지출 중 가공식품 비중 : ('90) 33% → ('95) 36 → ('00) 38

<표 12> 도시가계 식료품비 구성비

단위 : %

년 도	1990	1995	1998	1999	2000
신선식품	67	64	60	61	62
가공식품	33	36	40	39	38

### 2.3. 식품산업의 문제점

#### 가. 식품산업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정책 미비

- 식품제조업은 제조업 GDP의 15.09%로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나, 종합적인 지원정책이 부재
  -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등 규제위주의 식품행정으로 식품제조업 육성정책이 미흡
    - 농림부, 보건복지부 등의 8개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
- 지속적 성장이 예상되는 외식·전처리산업 등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인프라 및 지원시스템 미비
  - 외식산업의 식재료 공급은 농업과 직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기초자료 및 기본개념 조차 미흡한 실정

#### 나. 식품산업체의 경쟁력 취약

- 대부분의 식품제조업체가 영세하여 판매, 위생관리 및 품질향상 등에 애로
  - 매출액 10억원 미만 사업장의 비중이 82.8%, 10인 이하 사업장의 비중이 78.4%를 차지하여 대부분의 업체가 시설·품질수준이 낮음
    - 10억원 이하 업체 : 13,574개(전체 15,455개소중 82.8%) <식약청, '06>
    - 10인 이하 업체 : 12,128개(전체 15,455개소중 78.4%) <식약청, '06>
  - 국산원료의 부족과 주원료의 해외의존도가 높아 국제경쟁력 취약

- 외국 대형 외식업체의 국내 진출확대에 따라 국내 업계의 시장경쟁력 약화
  - 국내 외식기업 브랜드의 해외브랜드 점유비가 60%로 일본의 17%보다 높은 실정 <외식경영학회, '03>

#### 다. 원료농산물과 식품산업의 연계 부족

- 농업과 식품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체제미흡
  - 식품제조업, 외식산업, 급식산업 등에서 필요로 하는 안정적인 식품재료 공급체제 미흡
    - 국산농산물의 높은 가격과 수급 불안정에 따라 사용 기피
    - 중국산 김치원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한 제품이 점차 증가
  - 식품가공 표준화를 위한 원료농산물의 표준화 미비

#### 라. 식품 관련기술 개발 미흡

- 국가전략적인 핵심기술, 차세대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미흡
  - 식품의 R&D투자는 국가R&D(민간포함) 투자의 1%에 불과
    - 총 R&D투자 17.3조억원 중 식품R&D는 1.9천억원 <한식연, '04>
  - 신제품·신기술 개발보다는 외국기술도입에 의존
  -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기술개발 로드맵의 부재
- 식품 기술수준이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30~60% 수준
  - 식품 관련 기술도입에 따른 특허료의 해외 지급은 기술수출의 711배에 달하는 등 식품산업기술 개발이 요원
  - 음식상품화는 기계설비의 역할이 지대하나 현재 국내식품업계의 기계설비는 상당부분이 수입에 의존
    - 선진국대비 기술수준 : 수확전관리(60%), 품질관리(30%), 전처리(35%), 기능성연구(50%), 소재화(40%), 제품화(30%) <농경연, '04>



#### 마. 해외 마케팅 능력 부족

- 식품업체 마케팅 마인드 부족과 식품 전문수출업체의 부족으로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마케팅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
  - 해외 시장정보의 수집과 분석능력 및 적극적인 홍보 부족
  - 세계화 가능한 제품개발을 위한 투자 미흡
  
- 특화된 일부 품목과 특정 국가에 한정된 수출지원 정책으로 수출 다변화는 다소 미흡
  - 일본, 미국 등의 재외교민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전략에 기인
    - '05년도 수출실적에서 일본, 미국, 중국이 전체의 약 58% 점유
  
- 최근 한류열풍 등으로 한국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활용한 홍보 및 제품개발 미흡
  - 한국외식 기업의 진출 및 전통음식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정책 미비

#### 바. 품질인증제도의 운영활성화 및 차별화 미흡

- 인증제도는 많으나 인증획득업체가 적고, 실제 품질향상과 안전관리가 필요한 중소기업의 참여 저조
  - HACCP, KS 등 획득에 상당한 시설투자 및 관리능력 필요
  
- 인증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인증획득에 따른 실질적 인센티브 부족
  - 인증업체에 대한 중복적인 위생검사, 제도간의 차별화, 홍보부족 등으로 제도의 우수성에 대한 낮은 인지도 등

### 2.4. 식품산업의 향후 전망

- 반가공 식품과 외식소비의 계속 증대
  - 소득수준 향상, 식생활의 다양화 추구로 외식 및 편의식 수요 증가

- 여성의 지위향상, 사회참여 확대로 신선식품보다는 가정조리를 대체하는 가공식품 수요 확대
  - 전통적으로 가정에서 조리하던 김치 등 절임류, 장류 등의 공장상품화가 촉진
  
-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기능성식품, 친환경식품 등의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
  - 생명공학기술(Bio-Technology)의 발달로 다양한 기능성 식품이 개발되면서 기능성식품산업 활성화를 유도
  - 건강증진, 피부미용, 두뇌개발 등을 위한 기능성식품 수요 증대
    - 세계 건강기능식품시장은 급성장 : ('97)650억달러 → ('00)1,148
  - 소득 향상에 따라 양보다는 질을 중시하는 소비경향으로 유기가공식품 등의 친환경식품 시장이 증가
  
- 시장개방 가속화에 따라 국내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성은 더욱 약화
  - 국산농산물 경쟁력 약화로 가공원료의 수입의존도가 심화
  -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역관세를 피하기 위한 반가공 및 완제품 수입이 확대되면서 가공식품의 무역역조도 확대
  
- 소비자들의 다양한 가공식품 수요에 따라 식품의 생명주기가 축소되고 제품 간 차별화가 촉진
  - 차별화를 통한 시장선점을 위해 식품업체의 기술개발 및 신제품개발노력이 현재보다 더욱 가속화
  
- 세계화의 진전으로 미래의 소비자인 어린이·청소년층의 입맛이 서구화되면서 우리 농식품의 소비기반이 갈수록 취약해져 갈 전망
  - 젊은층이 주로 이용하며, 최근 외식산업 성장을 선도하고 있는 외국계 패밀리 레스토랑의 국내진입 확대
    - 패밀리 레스토랑 매출액 : ('01) 2,946억원 → ('03) 5,147
    - 상위업체 대부분이 외국계 업체 : 아웃백스테이크, TGIF, 베니건스 등

### Ⅲ. 전라북도 식품산업클러스터 구축 기본방향

#### 3.1. 식품산업 발전 과제

##### 가. 식품제조업체 경쟁력 강화

- 식품제조 시설의 현대화
  - HACCP, GAP, ISO 22000 등의 선진 위생관리기법 등 위생수준의 선진화·과학화·효율화를 추진
  - 시설 현대화가 기술도입, 제품개발, 경영개선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실시
  
- 식품분야의 기술개발 투자 확대 및 기술 보급 촉진
  - 우수한 세계기술 소개 및 개발된 기술의 보급 촉진
  - 증가하고 있는 기능성식품의 개발과 전통식품의 기능성 검정을 위한 기반조성 및 연구강화
  
- 식품제조 기업의 육성 및 제품 홍보 강화
  -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 및 판매 촉진 추진
  - 중소기업의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생산된 제품에 대하여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한 홍보 프로그램 운영

##### 나. 농업과 식품산업 연계 강화

- 생산자(농업인)와 식품 제조업체 정보 교류시스템 구축
  - 식품 제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품목·물량 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자(농업인)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교류체제 구축
  - 식품 제조업체 등에서 필요로 하는 작물의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국내생산 가능여부를 분석하여 품목별 생산대책 수립

- 국산농산물 이용업체의 차별화 강화
  - 계약재배 등 수매실적 우수업체에 자금지원의 인센티브 부여
  - 소비자단체, 농업인단체와 연계하여 국산농산물 사용 실적이 우수한 업체에게 수출지원 등 인센티브
  - 우리 농산물 활용한 새로운 가공식품 발굴과 산업화 지원

#### 다. 식품산업 혁신역량 강화

- 식품산업 분야에 대한 인력수급 조사 실시
  - 식품산업 노동시장 분석 및 수요예측을 강화하여 시장환경을 반영하는 인력양성이 되도록 자료제공
- 지역대학과 연계, 식품산업 관련 핵심인력 양성
  - 업계 수요가 많고 국내 취약 분야는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생산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교육으로 핵심인력 양성
  - 국내외 전문가 pool 구성하고 자료를 업계에 제공
  - 식품제조업체가 원하는 원료농산물 공급을 위한 생산농가 교육
- 산·학·관·연 협력체 구성
  - 식품산업 관련 각 주체의 협의체를 구성, 역량 집적하여 원료농산물 생산농가 및 식품 제조업체의 혁신 유도

### 3.2. 전라북도 식품산업의 여건 및 비전

#### 가.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여건

- 지역 전략산업을 기반으로 한 육성
  - 전북은 지역의 산업여건을 고려하여 4대 전략산업을 선정하여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전북의 4대 전략산업은 전통기반산업으로는 ‘자동차부품 및 기계산업’, ‘생물산업’, 신성장동력산업으로는 ‘방사선융합기술 및

대체에너지산업', '전통문화·영상·관광산업'임

- 전략산업 중 전통기반산업으로서 생물산업은 지역 내 고용 및 생산에 대한 기여가 큰 산업으로 음식료품산업, 청정생명농업, 한방산업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역의 산업기반을 강화하고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대상, 하림 등 식품산업 관련 477개 업체가 도내에 입지
  - 임실치즈, 순창장류·발효산업, 고창 복분자 등 지연산업도 발달함
  
- 전북은 전형적인 농업중심 지역으로 농업과 연계된 식품 산업 육성의 최적지
  - 호당 경지면적 전국 1위, 지역내 총생산(GRDP) 중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2.4%로 전국 평균(3.6%)보다 크게 상회
  
- 식품의 안정성, 기능성 담보를 위한 핵심 인프라가 확보 되어있고, 한국식품연구원 등 13개 관련 연구기관이 전북으로 이전
  - 방사선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분원, 안전성평가연구원 등 기운영
  - 한국식품연구원, 농촌진흥청 및 산하 연구기관 등 식품 및 농업관련 기관의 대거 이전으로, 전북은 바이오 농업과 식품산업 육성의 기본 조건을 완벽하게 됨
  
- 환황해권의 중심지로서 중국, 동남아 등의 식품시장 진출에 유리한 지리적 여건을 갖춘

#### 나. 식품산업 육성 비전

- 전라북도 식품산업의 기본여건을 바탕으로 전라북도의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식품산업 육성의 비전은 다음과 같음

비전

전북경제를 견인하는 고도화된 식품산업



기본  
방향

농업과 식품산업 연계

- 산지농산물가공산업육성
- 전북농산물 수요 증대
- 전통식품 소비 활성화
- 고품질농식품공급체계

식품산업 인프라구축

- 기술개발, 컨설팅 강화
- 식품산업전문인력 양성
- 식품전문산업단지 및 물류단지

기업유치 및 자본유치

- 국내외 식품업체 유치
- 해외자본의 유치
- 식품제조기기 및 패키징산업 육성



추진  
전략

-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으로 정책효율성 제고
- 기존정책 및 관계부처와의 연계 및 협력 강화
- 추진과제의 성격에 따라 단·중·장기로 구분하여 추진
-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에 중점 투자
- 기업유치 및 해외투자 유도

<그림 4> 전라북도 식품산업 육성 비전

### 3.3. 전라북도 식품산업 클러스터 구축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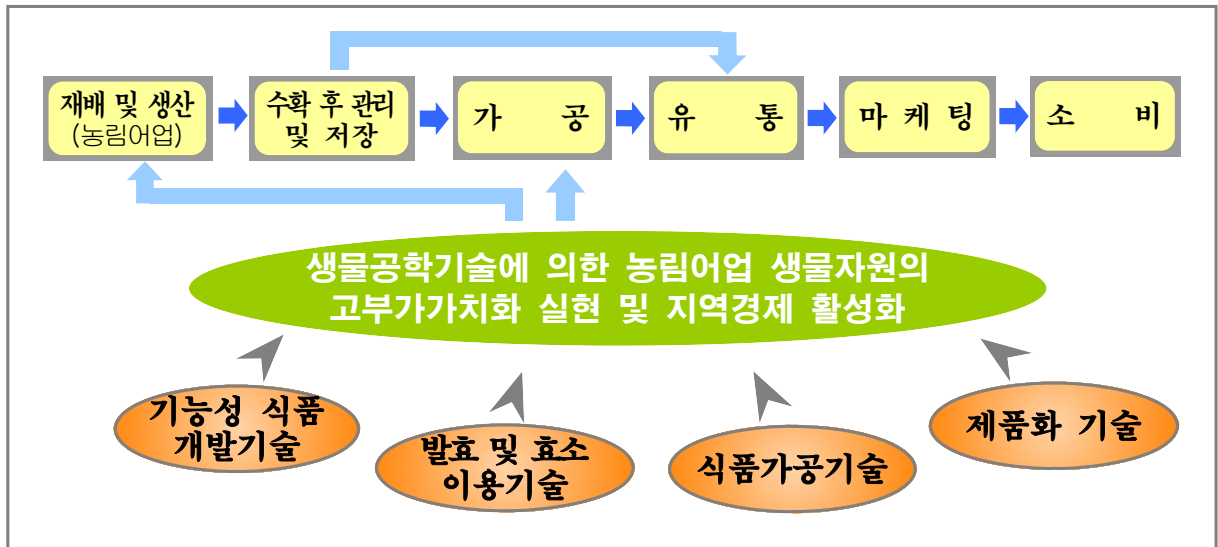
#### 가. 클러스터의 개념

- 지역산업 발전전략으로서의 클러스터
  - 지역산업발전전략으로 클러스터 접근은 산업이 발전된 선진국을 중심으로 많은 관심을 얻고 있음. 이는 클러스터의 발달여부가 해당 지역

- 은 물론이고 국가 전체의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임(Porter, 1998)
- 오늘날 세계 각국이 클러스터 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경제발전 상황에 따라 상이함. 즉, 선진국에서는 고용증대, 지역간 소득 격차의 완화(자립형 지방화), 미래산업 조기육성의 수단으로, 개발도상국에서는 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외자유치,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 등의 수단으로 클러스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권영섭, 2004)
  - 클러스터의 개념은 견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일반적 개념은 상호연관된 기업 및 기관들의 지리적 집중, 제품생산업체, 부품 공급업체, 서비스 공급업체, 연관산업, 협회, 연구소 및 대학 등이 서로 지식을 교류함으로써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리적 집중체로 정의할 수 있음(권영섭, 2004)
  - 클러스터의 개념에는 공통적으로 지리적 집중, 전문화, 연관기업의 존재, 연계성 등이 강조되고 있음. 즉 클러스터는 전문화된 기업들의 지리적 집중으로 발생하는 지리적 근접성에 따른 외부경제 이점을 가짐
    - 클러스터 내 기업들은 신기술이나 보완적인 기술에의 접근이 용이하고 상호작용 활동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핵심역량을 집중하고, 아웃소싱을 통한 위험분산이 가능하며 원재료 공동구매, 생산과 유통시설의 공동이용, 공동연구 등을 통하여 비용절감과 학습과정의 속도를 제고시킬 수 있음. 즉, 클러스터 내 기업들은 네트워크경제를 활용하는 이점을 얻음

#### 나. 식품산업 클러스터 구축 목표

- 농산물 생산, 가공, 안전성 인증, 유통 및 브랜드 관리, R&D 등 식품산업의 모든 연관산업이 광역적으로 집적화된 지식집약형 식품산업 집적지 조성
-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식품산업 육성과 원료산업으로서의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실현



<그림 4>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식품산업 클러스터

#### 다. 추진방향

- 식품산업의 국제 동향 및 시장여건을 고려한 글로벌 시야를 지향하며, 전복의 특성을 고려한 H/W, S/W 등 기반을 구축
- 지역내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생산, 집하, 저장, 가공, 포장, 유통·마케팅, 브랜드 관리까지 종합적으로 접근

#### 라. 추진전략

##### □ 전략목표

- 값싼 해외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대규모 식품가공업체를 유치하고, 생산된 제품을 중국을 비롯한 외국으로 수출하는 가공무역체제 구축하기 위한 기반조성
- 고부가가치 농업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마케팅 능력을 갖춘 지역 농업 밀착형 식품기업 육성·지원 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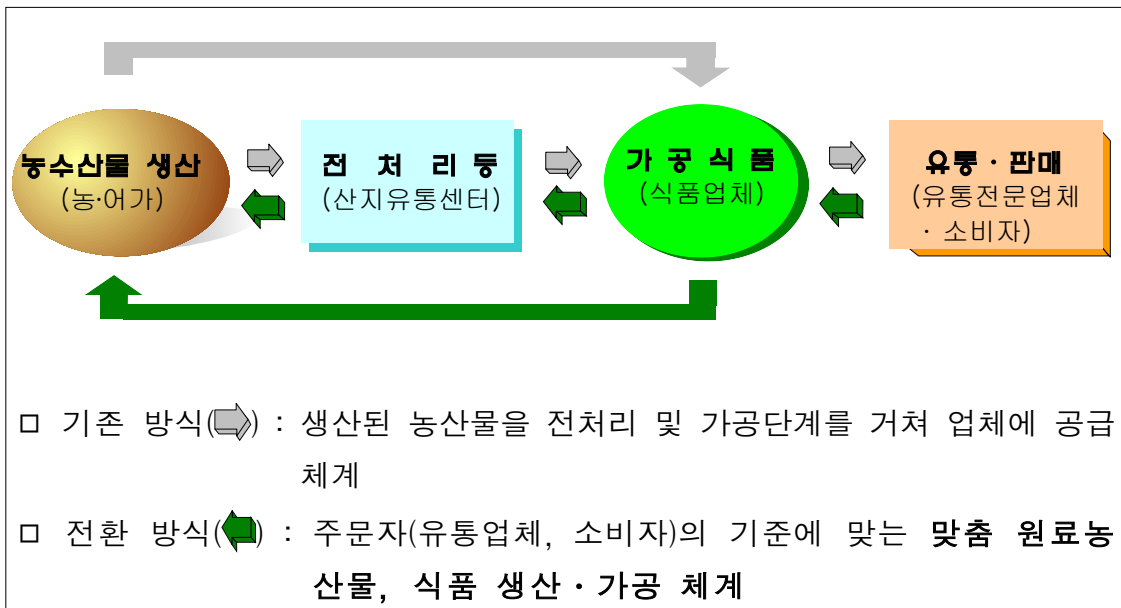


- 기존 산지가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규모 클러스터 구축과 국내외 식품 대기업 유치 및 창업유도를 위한 산업 단지 조성 등을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 클러스터 등 2개의 전략목표 설정·추진

□ 그간 추진사업과의 차별성

- 그간 지원정책은 생산 농가·중소 식품기업에 대한 개별 지원에 치중, 시너지 효과가 미흡
- 또한, 식품기업의 영세성으로 식품산업을 통한 농업의 지속적 성장과 고부가가치화를 견인하기 어려운 환경

⇒ 마케팅 능력을 갖춘 유통전문업체, 소비자 등과 연계, 식품기업·농가 등 관련 주체들의 공동 발전을 위한 클러스터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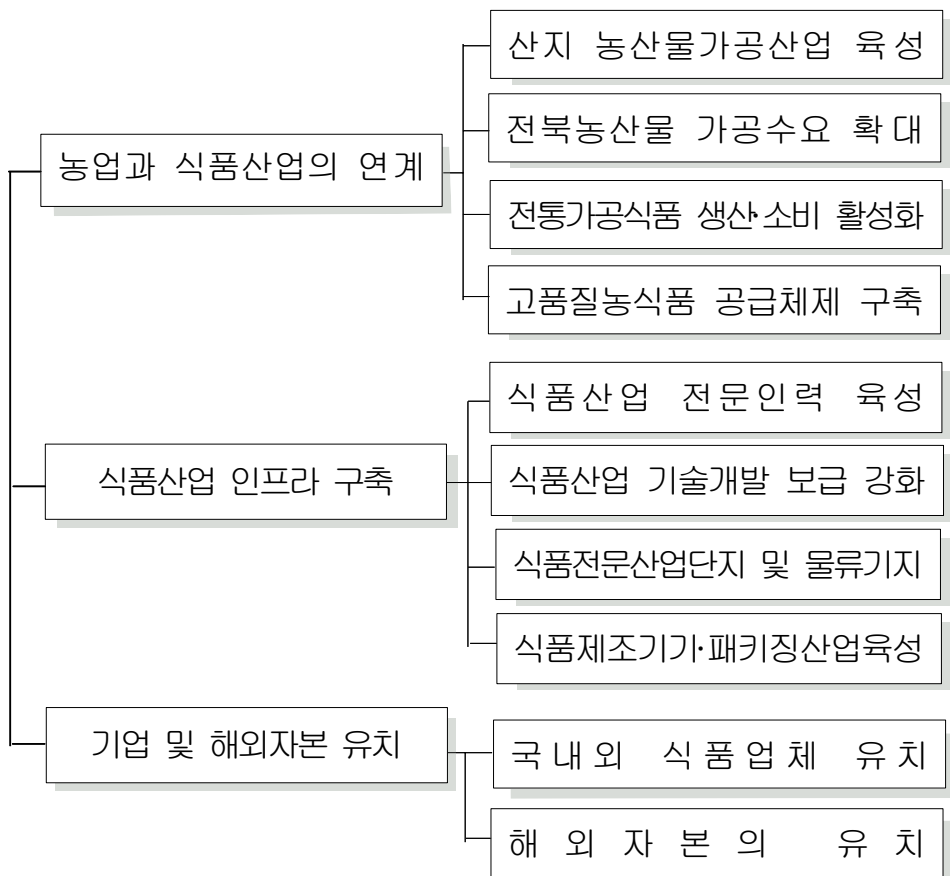
<그림 5> 식품산업 클러스터 추진을 통한 농수산업과의 연계

## IV. 전라북도 식품산업클러스터 구축 추진전략

### 4.1. 전라북도 식품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중점과제

#### □ 식품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과제의 선정

- 식품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1차적으로 식품산업의 성장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농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함
- 식품산업의 선도거점지역을 구축하고 수요자(기업) 지향의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며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략적 접근으로 투자효율성을 제고함
- 식품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으로서의 식품기업의 유치 및 해외자본의 유치를 유도함



<그림 6> 식품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중점과제

## 4.2.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 가. 산지 농산물가공산업 육성

#### □ 산지 농산물 가공업체 경영활성화 유도

- 경영평가기법을 개발하고 평가를 실시하여 대상 업체를 등급화
  - 우수 업체를 중심으로 원료수매자금, 시설자금 등의 지원금액 및 금리 등을 차등 지원하여 운영부실업체 퇴출, 통·폐합, 또는 수직·수평 계열화 등 구조조정을 유도
  - 신제품, 포장디자인 개발 및 전자상거래 체계구축 등 품질·유통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 경영 컨설팅사업의 추진과 이에 연계한 시설개선 지원으로 투자효율성 제고
  - 기업의 시설개선이 기술도입, 제품개발, 경영개선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을 통한 효율적인 투자를 유도

#### □ 위생수준의 선진화·과학화·효율화를 추진

- HACCP, GAP, ISO22000 등의 선진위생관리기법 및 효율적인 운용시스템 도입을 위한 지원 강화
  - 자금지원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컨설팅 및 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위생관리를 할 수 있는 자발적인 역량을 갖추도록 유도

#### □ 판매·유통 공동조직화 및 공동 브랜드화 유도

- 지역별, 품목별, 제조업체 간의 공동조직화 유도
  - 분야별 특성을 분석하고 브랜드화 및 홍보전략을 수립·추진
- 품목별 공동브랜드 개발 및 물류·판매 전문조직 양성
  - 전략적 품목을 발굴하고 공동의 BI, CI 개발 및 홍보 지원

## 나. 전북농산물의 가공수요 확대 추진

- 전북농산물 이용을 제고를 위한 식자재 산업 육성
  - 식자재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 강화
    - 농산물 식자재의 규격화, 표준화 지원
      - ※ 업계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격을 제공하여 거래비용 절감
    - 전처리 업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 및 공동 브랜드화 유도
    - 안전성 제고를 위한 인증제도 도입
      - 우수한 농산물 식자재 가공기업 인증제 및 표창제도 도입
    - 전북 도내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축산물종합처리장(LPC), 미곡종합처리장(rpc)가 식자재 산업에 참여토록 유도
    - 기계화, 자동화, 저온유통체계, HACCP 등 위생관리 시스템 구비를 위한 재정 지원
  - 전처리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연계 강화
    - 도내 농산물 산지의 대규모 재배장려 및 외식·식재료 업체와 계약재배·계약출하 유도 및 지원
    - 새로운 수요를 반영·창출하는 전처리농산물 개발 및 지원확대
    - 생산자단체 및 중소기업체를 위한 B2B 지원시스템과 코디네이터 도입으로 상업적 기회 확대 제공
- 작목생산의 단지화 추진 및 식품산업 미니 클러스터 육성
  - 지역별로 경쟁력 있는 작목의 단지화 추진
  - 생산 작목과 식품산업을 연계하는 식품산업 미니 클러스터육성
    - 농림부가 추진 중인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에서 식품산업 분야 강화
- 학교급식 및 급식업체에 전북산 식재료 공급·지원 추진
  - 학교급식에 전북산 농축산물 공급을 위한 지원강화
    - 생산 품목 선정에서부터 소비와 연계될 수 있도록 전북지역 생산자단체와 소비업계의 연계를 위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
    - 쇠고기, 과일, 양념류 등 수입 식재료를 전북 농산물로 대체되도록 전북

산소비기반 확보가 요구되는 품목 중심으로 보조지원 검토

- 단체급식업체에 수입원료 이용비율이 높은 식자재를 대상으로 전북산 농산물 계약거래 실적에 따라 원료수매자금 지원
  - 수입원료 이용이 높은 품목 : 축산물(쇠고기), 냉동감자, 채소류 등

□ 전북산 농산물 이용업계의 지원강화

- 가공식품 원료수매자금 지원조건 확대
  - 업체당 지원한도를 증액하여 선택·집중으로 정책효과 극대화
  - 계약재배 등 수매실적 우수업체에 자금지원 등의 인센티브 부여
- 전북산 농산물 사용 실적이 우수한 가공업체, 단체급식업체, 외식업체의 인증제 실시
  - 소비자 단체, 식품단체, 지자체와 연계하여 인증제를 실시하고 업계에 실질적인 이익을 줄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

□ 수출지원 및 수입관리제도와 전북산 원료농산물 이용실적 연계, 전북산 농산물 이용 활성화 유도

- 전북산 농산물 가공·이용 우수업체에 수출지원 및 수입물량 관리상의 인센티브 부여 확대
- 전북산 농산물 이용실적이 우수한 업체에 대해 해외 진출 기회 제공

□ 수요를 반영하는 작물생산 및 가공 식품 지원강화

- 외식업체 등에서 필요로 하는 작물의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전북내 생산 가능여부를 분석하여 품목별 생산대책 수립
  -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작목·품종의 개발 및 생산유도
- 최근 급증하고 있는 친환경식품 및 건강소재 작목의 개발 및 생산유도
  - 경쟁력이 있는 농산물의 가공 식품화 연구 강화
- 소비자의 구매동향 정보의 실시간 제공으로 시장흐름을 반영하는 제품개발·생산 및 시설도입 유도
  - APC, RPC, LPC 등에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제품의 생산체제 도입을 지원

## 다. 전통 가공식품의 생산소비 활성화

-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는 다양한 전통가공식품 개발 지원
  - 전통식품명인, 전통식품품질인증업체, 민속주추천업체 등의 우수 품질 관리 업체 위주로 전통식품의 산업화·세계화 유도
    - 시설자금, 운영자금, 신제품개발 연구비 등 지원
  
- 전통가공식품 Marketing 지원 확대
  - TV,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활용, 우수전통식품 홍보
    - 품목별로 주요 소비계층 특성에 따른 홍보를 실시하는 등의 전략적 마케팅 지원
  - 마케팅능력이 없는 영세·우수 전통식품업체를 백화점, 할인점, 외식업체 등의 대형수요처 알선
  - 전통주 판매·유통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해외 각국의 식품위생·인증제도, 식품검사규격, 식문화·식생활성향 등의 정보를 수출자에게 제공
    - 종합적인 해외 식품정보화 체제구축 및 수출 컨설팅에 적극 활용

## 라. 고품질 농식품 공급체계 구축

- 과학적 위생 시설 확충 및 조기정착 추진
  -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 제도 조기정착 지원
    - 전처리 농산물 생산시설의 HACCP 기준 설정 및 인증 지원
    - 식품 제조·유통업체·외식업체 등의 HACCP 시설 지원
  -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이력추적관리제도(Traceability)의 조기 추진 및 정착 추진
    - 수확 후 처리단계의 위생제고를 위해 APC 등 산지 농산물처리장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위생설비 지원
    -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위생제도의 도입에 따른 실질적인 경영이익이 식품업체에게 발생할 수 있도록 유도

- 국내산 농산물의 안전성 Monitoring 및 식품생산자 교육 강화
  -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의 농약, 미생물 등에 대한 안전성 Monitoring 강화
    - 소비자 단체 등과 연계한 모니터링으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
  - 식품 관계자 교육 확대로 안전한 농식품 생산인식 제고

### 4.3. 식품산업 인프라구축

#### 가.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 식품산업분야에 대한 주기적인 인력수급 조사
  - 식품산업 노동시장 분석 및 수요예측을 강화하여 시장 환경을 반영하는 인력양성이 되도록 자료 수집 및 분석
- 교육방법의 다양화 및 내실화
  - 식품관련 직능 단체의 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 직능단체별로 특성에 맞는 위생·안전 및 품질관리 등의 교육
    - 우수인재(분야별 성공사례 등)를 활용한 홍보 강화
  - 전문분야별 국내외 전문가 pool 구성하고 자료를 업계에 제공
    - 업계 소요가 많고 국내 취약 분야는 초청 세미나 등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학회 지원
  - 식품제조 및 외식산업 전반에 대한 정보를 체계화하고 D/B화하여 간접적인 교육기회 제공 확대
    - 외식산업 및 외식업 직업관련 인터넷 포털 사이트 마련
    - 산업 분야별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연수원 또는 기타의 기관에 개설 추진
    - 외식산업 전문가 양성과정, 식품제조 안전전문가 및 마이스터 과정 등 e-learning 시스템 구축
- 인력육성 및 교육 관련 부처와의 연계 강화
  - 직업 교육 프로그램에 식품관련 과정 강화
    - 산업계에서 필요한 유망 직종 훈련프로그램을 개발 및 실시

- 대학, 전문대학 등의 교육과정에 현장에서 파악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편검토
  - 외식산업 분야 전문가 과정 개설
  - 발효공학, 생명공학 등 첨단 분야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 식품제조업 분야 인력 확보 추진
  - 외국인 산업연수생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도입 및 확대
  - 식품산업 관련 자격증을 제도화하여 취업과 교육이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

#### 나. 식품산업 기술개발 보급 강화

- 기관별 역할분담을 통한 기술개발의 전략화
  - 정부, 연구기관 및 민간의 효율적인 연계시스템 구축
    - 식품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협의회(정부, 학계, 산업계) 구성 및 운영의 내실화
  - ※ 기관별 특성에 따른 역할 분담(안)
    - 정부 : 장기비전 설정, 중장기 로드맵 등의 전략수립 및 예산확보와 전문인력 육성정책 추진
    - 연구기관 : 기술·산업체 애로기술 개발, 중소기업 등에 기술개발 지원
    - 기업 : 상품화 가능한 우수과제의 발굴 및 응용기술 개발
- 식품분야의 기술개발 투자 확대 및 기술의 보급촉진
  - 농림과학기술개발사업에서 식품 분야의 연구를 식품, 식품관련 기계 및 보관방법 등의 다양한 분야로 확대
  - 식품산업 관련 우수한 세계기술 소개 및 개발된 기술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이버 기술거래 시장 구축
  - 증가하고 있는 기능성식품의 개발과 전통식품의 기능성검정을 위한 기반조성 및 연구강화



-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른 식품 기술개발 지원
  - 실용화 가능성, 향후 시장성 등을 고려하여 중점 연구분야 선정
    - 기능식품, 신선편의식품, 전통식품, 식품소재 분야 등
  - 중점연구 분야에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연구관리 강화
    - 중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야할 연구과제는 사전기획 후 대규모 프로젝트화하여 추진

#### 다. 식품전문산업단지 및 물류기지 조성

- 식품전문산업단지 조성
  - 자동차, 기계, 화학 등 타산업은 전문 산업단지를 운영하고 있으나, 식품 산업은 높은 성장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전문 산업단지의 부재로 식품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
  - 식품제조업으로 특화된 대규모 식품산업 단지를 조성하여 국내외 식품 시장 진출의 교두보 마련
- 연관산업 집적
  - 식품업체의 연구, 제조, 마케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식품 연구개발시설 및 지원센터 등 연관 산업 집적화로 식품산업의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안전 식품생산을 위한 안전성 인증 체계 구축
- 선진 물류기지 조성
  - 도로, 항만, 철도 등 선진 물류 체계 구축으로 물류비 절감
  - 식품의 원료인 농산물의 특성이 보관기간이 짧고, 부피가 큰 점을 감안하고 식품의 유통 효율화를 위하여 예냉시설(Cold Chain System)을 갖춘 대규모 물류단지 조성
- 식품제조·패키징 산업 육성
  - 식품산업의 배후산업으로서 식품제조 기계 및 패키징 기계 생산업체

를 집적하도록 함

- 생산된 식품의 재질, 모양, 신선도 등을 유지하고 상품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식품제조 및 포장 기계의 개발·생산

#### 4.4. 기업 및 해외자본 유치

##### 가. 국내의 식품업체 유치

- 업체를 집적화시킴으로서 기업간 연계강화 가능
  - 지역별 공동 브랜드 활용 촉진
  - 산자부는 바이오파크 조성사업을 추진(바이오클러스터 사업으로 육성된 벤처기업 등을 일정 지역에 집적화시켜 기업간 연계를 강화)
-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 전라북도는 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법인세 감면, 도로개설 등을 추진(산자부의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식품업체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인프라 조성을 정부에서 할 경우 이점을 희망하는 업체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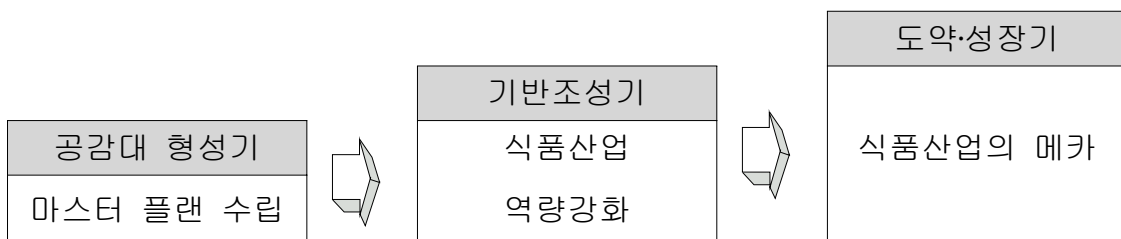
##### 나. 해외자본 유치

- 식품산업클러스터와 연계한 외국인 투자 집중 유치
  - 식품산업의 육성시책과 병행한 해외자본 유치
    - 전북의 식품산업 경쟁력 확보와 산업 육성을 유도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 집중 유치
  - 해외자본의 유치를 위해 외국인 전용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저가의 분양 혹은 무상임대 추진
- 잠재적인 해외 투자기업 발굴
  - 전라북도의 식품산업 육성에 관심을 갖고 있는 잠재적 투자자의 발굴

- 과 투자안내 및 상담활동 추진
- 비즈니스 중심의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 전개
  - MAN-to-MAN 방식의 투자유치와 Investment Tour의 지속적인 추진

#### 4.5. 단계별 사업 추진전략

- 1단계(공감대 형성기) : 연구용역
  -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 및 기본계획 수립
  - 기존 산지가공업체와 생산농가 및 관련 산·학·연·관의 소규모 클러스터화 및 산업단지 조성 등을 포함한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의 계획 수립 및 국가 예산 확보
  
- 2단계(기반조성기) : 식품산업 클러스터 기반 조성
  - 식품산업 관련 산·학·관·연 혁신역량 집적 및 네트워크 구축
  - 시험 생산공장(Pilot Plant), 연구개발 등을 위한 R&D 시설 지원
  - 지역대학 등과 연계하여 인력육성 및 기술개발 추진
  - 항만, 도로 등 선진 물류 체계 구축
  
- 3단계(도약·성장기) : 식품 제조업체 집적 및 육성
  - 식품산업의 역량 강화를 통한 메이저 식품 기업 육성 및 중국, 동남아 식품 시장 진출
  - 식품기업 유치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 ⇒ 국내 농업의 지속적 발전 유도



<그림 7> 식품산업 클러스터 사업 로드맵(Road Map)

## 4.6. 식품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핵심 추진과제

### 가. 농산업 클러스터 구축

#### □ 농업특산단지 조성 및 농산업클러스터 육성

##### ○ 농업특산단지 조성 및 농산업 미니클러스터 육성

- 시·군별 특성에 따른 농업특산단지를 조성하고 특산물 가공, 유통을 연결한 농산업클러스터를 육성함
- 농산업클러스터는 지역의 특화작물, 지자체의 정책방향, 정부의 정책사업 추진현황, 시장동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전라북도에서 육성 가능한 농산업클러스터는 21개 품목을 중심으로 46개 클러스터로 분류됨(김정호 등, 2005)
  - 농산업클러스터와 관련한 정책사업은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농림부), 신활력지역 지원사업(행자부),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재경부), 광역친환경농업단지산업(농림부) 등이 있음
- 지역별 주요 농산업 미니클러스터는 시군별 특화작물, 지자체의 정책방향, 정부의 정책사업 추진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 전주시 : 바이오식품산업클러스터
  - 군산시 : 해양생물클러스터
  - 익산시 : 한방의학클러스터
  - 정읍시 : 환원순환농업클러스터
  - 남원시 : 허브산업클러스터
  - 김제시 : 바이오식품산업클러스터
  - 완주군 : 포도주산업클러스터
  - 진안군 : 홍삼한방클러스터
  - 무주군 : 생태농업클러스터
  - 장수군 : Mt. Apple Power 클러스터 및 한우클러스터
  - 임실군 : 낙농(치즈)클러스터
  - 순창군 : 장류산업클러스터



## 나. 식품산업 지원기관 건립

### □ 식품산업 기술거래소 건립

- 지역성장의 원동력으로서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와 이의 지속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 마케팅, 타기술과의 결합 등 시장화 영역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음
- 이를 위해서 지역 내 개발된 식품제조 및 안전성 기술은 물론 국내외 사업성이 높은 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가 필요하며, 이러한 기술에 대한 기술가치평가, 기술거래노하우, 해외기술수출지식, 투자알선 및 기업거래알선 등 다양한 기술사업화 노하우가 필요하며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해 줄 조직이 필요함
- 식품산업 분야의 기술거래소를 설립함으로써 기술거래 인프라 구축
- 도내 식품업체가 필요로 하는 기술수요분석, 기술가치평가 및 기술이전 활동을 추진
-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국내외에서 개발된 기술을 적극적으로 거래 유통 추진
- 지역 내외의 기술정보에 대한 전문적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술의 시장화 촉진 및 신산업 창출 촉진

### □ 농업생명클러스터 종합지원단 설치

- 산업클러스터 육성은 기업의 유치를 통한 산업집적지의 형성, 연구개발체계 구축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산업화, 기업지원서비스 기능의 확충, 인력양성 및 하부구조의 구축, 협력체계의 구축 등 종합적인 정책을 요구함
- 또한 클러스터 육성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도 중요하며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직의 역할이 필요함
- 농업특산단지의 조성 및 농산업클러스터, 식품산업클러스터의 육성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지원단 설치
- 산·학·연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능 부여

□ 식품산업 고도화 지원센터

-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시설, 식품분석실 및 분석장비 등 R&D 지원, 시험생산 공장(Pilot Plant) 등을 통해 영세식품업체 지원
- 공동 마케팅 및 기업간 연계강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동 활용 행정동, 전시실 및 세미나실 등을 갖추도록 함
-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인력육성 및 기술개발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비 지원

□ 식품안전성 인증 센터

- 소득수준의 증가와 환경에 대한 인식 제고로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식품안전성 평가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
-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안전한 식품 생산을 위한 검사장비·시설 등을 보유하여 안전성을 인증하도록 함

**다. 전문 식품산업단지 및 물류단지 조성**

□ 산지가공업체 집적단지

- 소규모 산지가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지의 가공업체를 집적
- 공동 폐수 및 폐기물 처리 시설, 산업용수, LNG 등 지원
- 표준공장 및 물류창고를 건립하여 입주업체에 저가 임대

□ 내수 위주 전문 식품생산단지

- 내수 위주의 국내 대기업을 집적하여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
- 산지가공업체 집적단지와 연계 강화 등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B2B (Business to Business) 사업 강화로 동반성장 유도
- 국산농산물 활용정도에 따른 과세 표준 공제 방안 검토
- 입주 허가에서부터 생산·유통 활동과 관련한 행정업무를 일괄 처리

□ 가공무역형 식품산업단지(FTZ)

- 수출 위주의 다국적 기업과 국내 대기업을 유치하도록 하며, 자유무역 지역(Free Trade Zone)으로 지정하여 운영
- 수입 및 수출을 위하여 일정기간 보관되는 중계 무역물품 등에 대한 관세 유보 등 관세 특례 적용
- 국내외 원자재를 혼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의 국내 원자재 사용 부분에 대한 과세 표준 공제
- 수입 농산물을 원료로 한 제품 및 중간재 국내 반입시 유보된 관세 부과하여 국내 식품제조업체 보호

□ 식품제조 및 패키징 기계업체 집적단지

- 식품제조의 기준에 적합한 식품제조 기계를 생산하는 생산업체를 집적시켜 상호정보 교류 및 학습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함
- 패키징 기계 생산업체의 집적으로 업체간 정보의 공유를 통해 상품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기술의 개발 및 포장 기계의 개발

□ 원료 및 식품 물류단지

- 원료 농산물과 수요처인 식품제조업체간 원활한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하고, 원료농산물 집하 및 분산 등을 위한 물류단지 조성·운영
- 농산물의 부피가 크고 보관기간이 짧다는 점을 감안, 대규모 창고, 저온저장고 등을 건립, 입주업체에게 저가 임대
- 예냉시설(Cold Chain System) 등을 갖춘 첨단 물류 기업을 유치, 단지 내 식품기업의 물류 비용 절감



연구수행기관

---

전북발전연구원

원장 : 한영주

연 구 진

---

연 구 책 임 이승형(연구위원)

식품산업클러스터 육성계획

---

발행일 : 2006년 10월 30일

인쇄일 : 2006년 10월 30일

발행인 : 전라북도지사

발행처 : 전라북도 (과학산업과, 친환경농업과)